2024 년 11 월 17 일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정병철 장로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행 4: 14-20)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피: hkb.church

지난 주 설교 요약

“축복의 삶” (시편 1:1-6)

오늘 시편 1 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 참된 행복의 삶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축복의 삶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1 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죄인의 길. 즉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길에 서서 걸어왔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 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았기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의 삶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체험하는 삶입니다. 2 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변화와 기적과 확인된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역사하여 기적과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때 진정 행복한 삶, 담대한 삶, 자유한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축복을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부장 모임** - 오늘 오후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3. **추수감사절 예배** - 11 월 24 일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초대해 주십시오.

4. **문화 봉사 -** 사회협력부에서 12 월 7 일 토요일 오전에 문화 봉사와 전도를 위한 김장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성탄 예배** - 12 월 22 일에 성탄절 예배 2 부 순서를 갖습니다. 개인, 가정, 단체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부장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17	11/24	12/01	12/08
대표기도	정병철	유영민	손정임	김현옥
헌화성도	유영민	정명희	차은희	이진수
봉사당번	믿음구역	추수감사절 믿음구역	소망구역	소망구역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 감사예배	11 월 24 일
	노방전도	미정
12 월	성탄 주일예배	12 월 22 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셩경공부-12 주	12 주

계명을 지키려 마세요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에서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의 칼럼 중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이라 옮겨서 칼럼에 싣습니다.

저는 서른 한 살,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한 후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고후 5:17 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의지력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노력해 보았지만, 잠시 되는 듯 싶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실망감이 절망감이 되었고,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이 계명대로 살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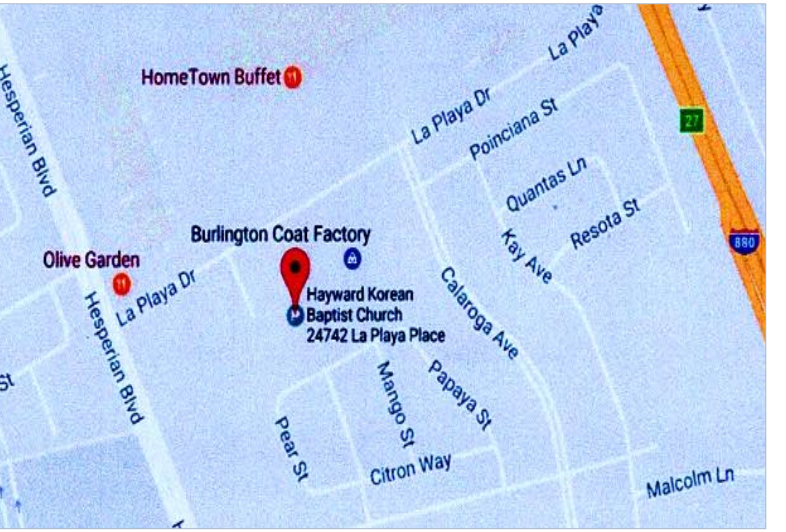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왜 주셨을까? 계명은 자신의 힘으로 지키라는 '지시 사항'이라기보다, 지켜지도록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노력하는 대신에 기도하니까 죄책감이 사라질뿐 아니라, 실제로 계명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포기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Sunday Main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본당 *Main Sactuary*
어린이예배 *Sunday Children's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유치부실 *Children's Room*
영어예배 *Sunday English Service*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영어부예배실 *English Service Room*
주일성경공부 *Sunday School*	주일오후 12 시 *12:00 P.M.*	유년부실 *Group Class R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Meeting*	매일 화-토 6 시 *DailyT-Sat 6 a.m.*	본당 *Main Sactuary*
구역모임 *Local House Meeting*	매 월 *Monthly*	구역별 각가정 *Local church member's home*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 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Children's Ministry: Joy Song*	510-415-1696	Ejoysong@ 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